

## 3·15의거 제46주년 기념 메시지

3·15의거 마흔여섯 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마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15의거는 우리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재와 불의에 맞서 일어난 여러분의 용기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 과제였고, 그 뒤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인 저부터 초과권력을 깎아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확실히 끊어지고, 권력기관들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멀리 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를 존중하는 문화를 뿌리내려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양극화를 비롯한 여러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 온 마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